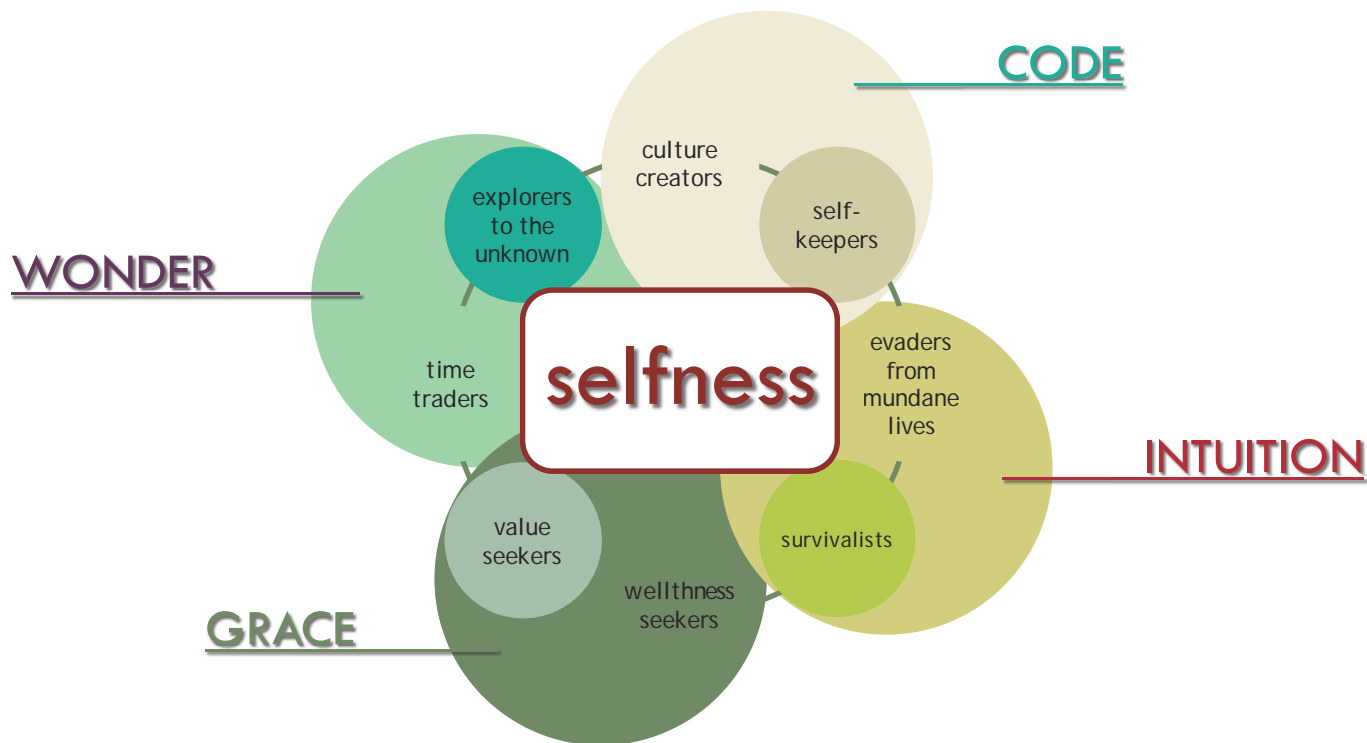


Color Theme II _ INTUITION

첨단의 세상으로부터 한발 떨어져 자연과 본능, 우리의 감각에 귀 기울이려는 태도





selfness

자기다움, 나를 바라보다

모험과 투자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다움

나만의 취향

나만의 가치

나만의 고급스러움

2016년 Fall과 Winter 시즌에는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있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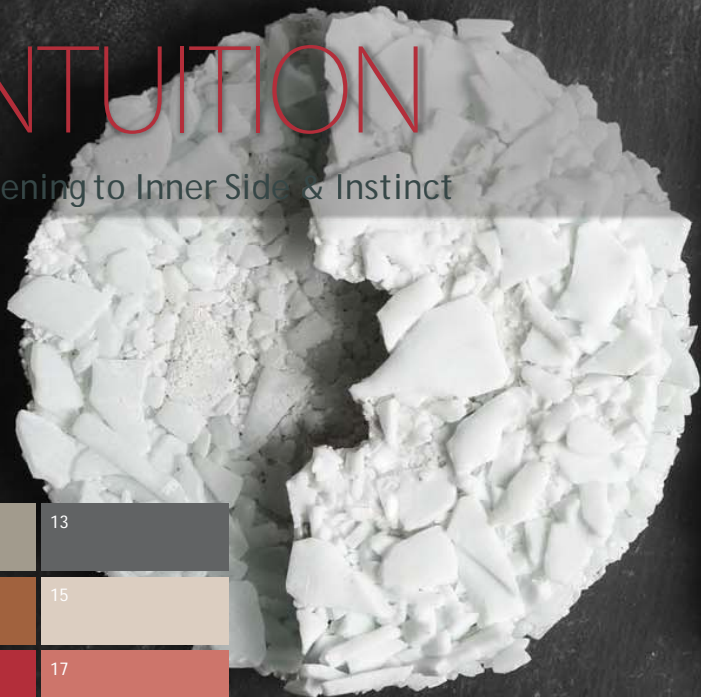
나를 깊이 바라보고 나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 각각의 개인은 독특하고 살아있는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된다.

'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칫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처럼 개인을 들여다보고 개인의 영역에서 문제점을 찾음으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감각을 갖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INTUITION

Listening to Inner Side & Instinct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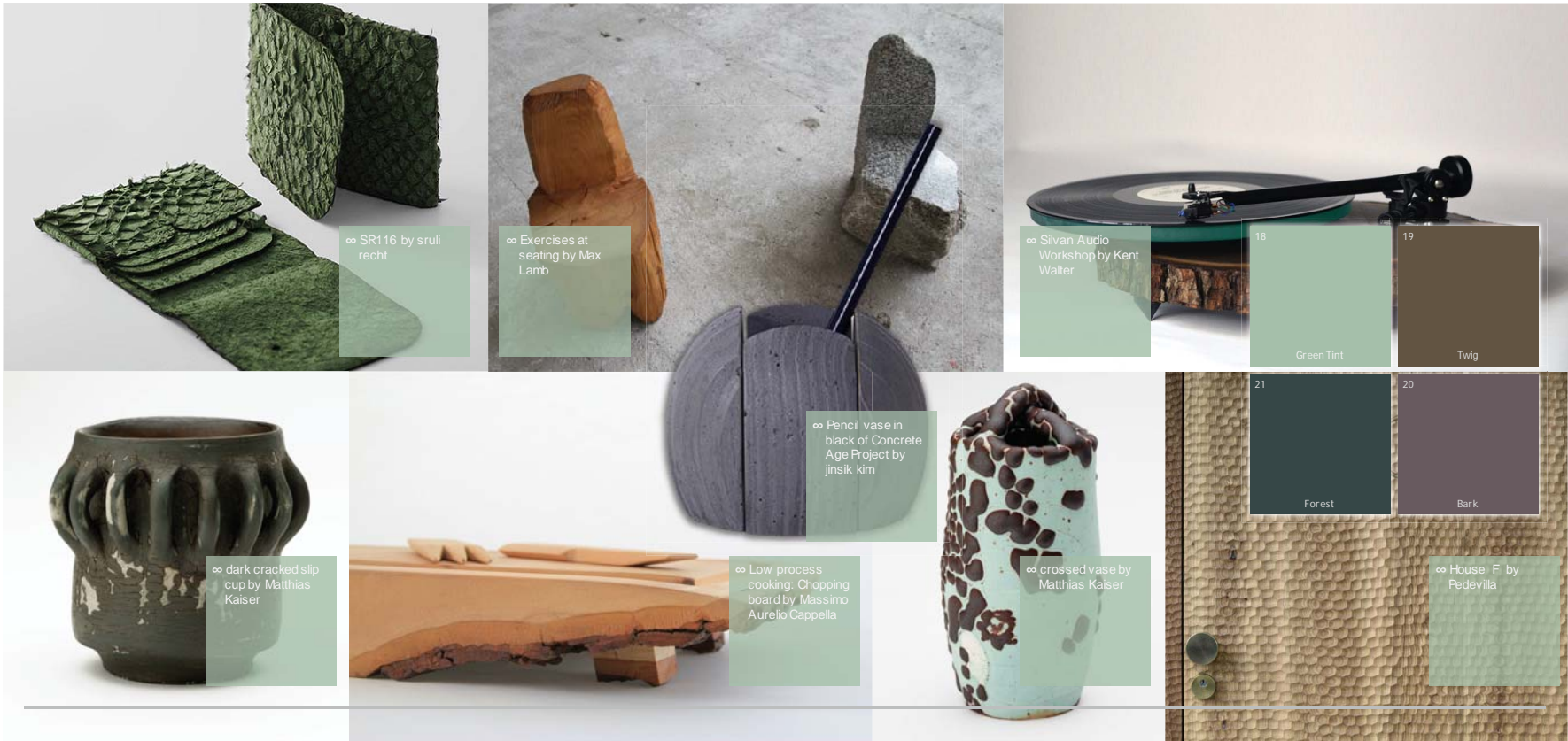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세상으로부터 한발 떨어져서 자연과 본능 그리고 우리의 감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들.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내면의 성찰과 정신 세계를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탐구한다. 자신의 본능을 믿고 자연을 활용한 인간의 자생력을 찾는 방법들을 구하며, 원시 부족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지금 우리는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급자족하였던 원시 시대의 삶을 지향한다.



Colors from Prehistoric Age

선사시대에서 영감을 얻은 원초적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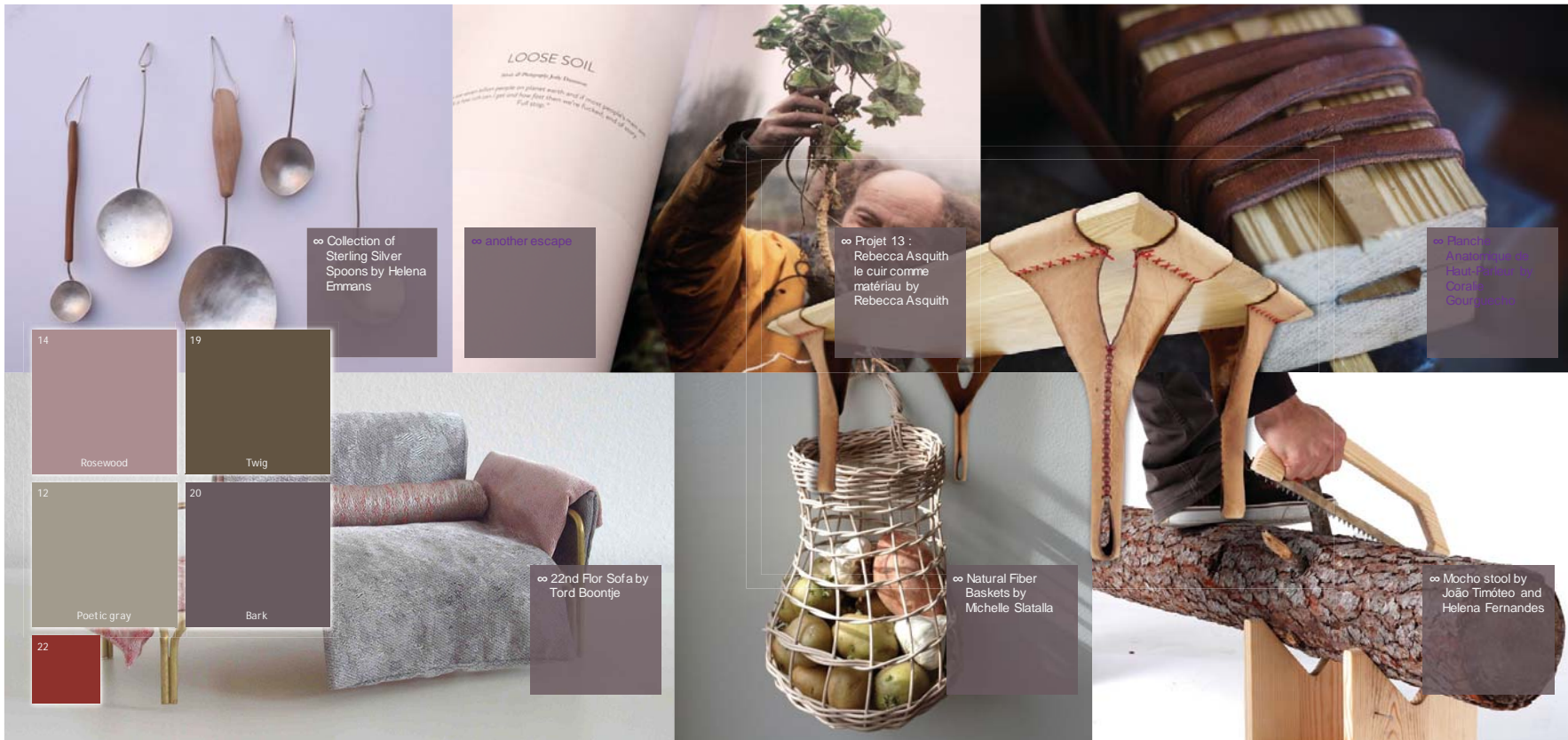
자신의 본능을 믿고, 자연을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인 선사시대(pre-historic)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와일드(wild)한 자연을 표현하는 다양한 휴(hue)의 그린(green) 톤들과 원초적인 천연의 염색을 표현하는 레드(red) 톤들이 내추럴한 스킨톤(natural skin)과 함께 제안된다. 그리고 그레이(grey)가 우리의 본능을 일깨우는 자연과의 연결을 표현하는 컬러로 제안된다



privism

원시주의

INTUITION의 첫 번째 컬러테마에서는 자연과 닮은 것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테마이다. 보다 와일드(wild)하고 보다 자연스러운(natural) 디자인들로 표현되는 테마로, 돌, 나무, 가죽 등 자연 그대로의 텍스처어(texture)를 표현하며 가공을 하지 않은 로우한(raw) 감성이 표현된다. 퇴비나 가공하지 않은 나무의 거친 느낌을 표현하는 소재들, 특히 사포질을 하지 않은 무늬와 결이 그대로 표현되는 로우한 감성의 소재들이 중요하게 제안된다. 콜드 그린(cold green), 포레스트 그린(forest green) 등 그린과 브라운(brown)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로우한 자연의 감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 Collection of Sterling Silver Spoons by Helena Emmans

∞ another escape

∞ Projet 13 : le cuir comme matériau by Rebecca Asquith

∞ Pancha Artesanal de Haut-Vallée by Corine Gourguennec

14 Rosewood
19 Twig
12 Poetic gray
20 Bark
22

∞ 22nd Flor Sofa by Tord Boont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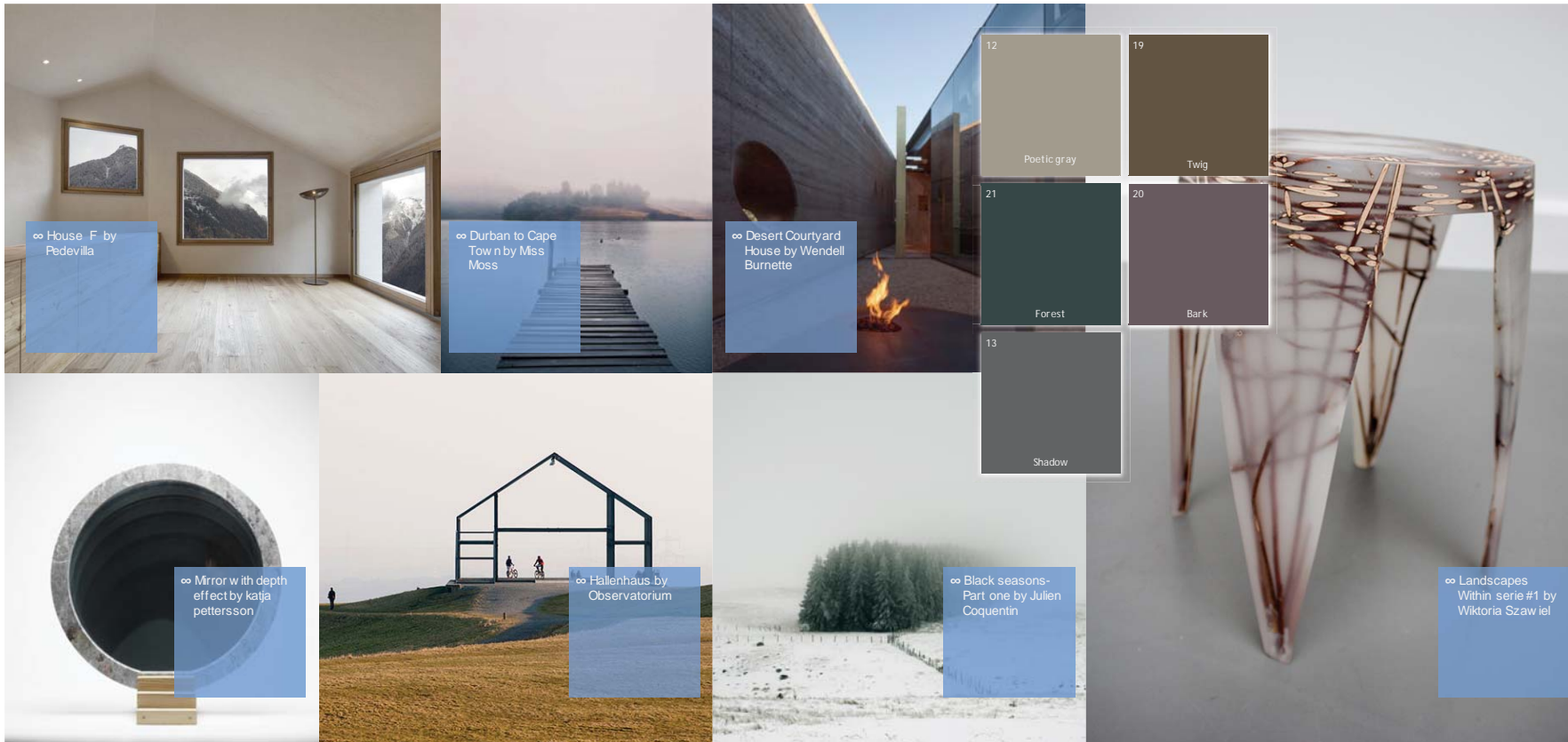
∞ Natural Fiber Baskets by Michelle Slatalla

∞ Mocho stool by João Timóteo and Helena Fernandes

surviva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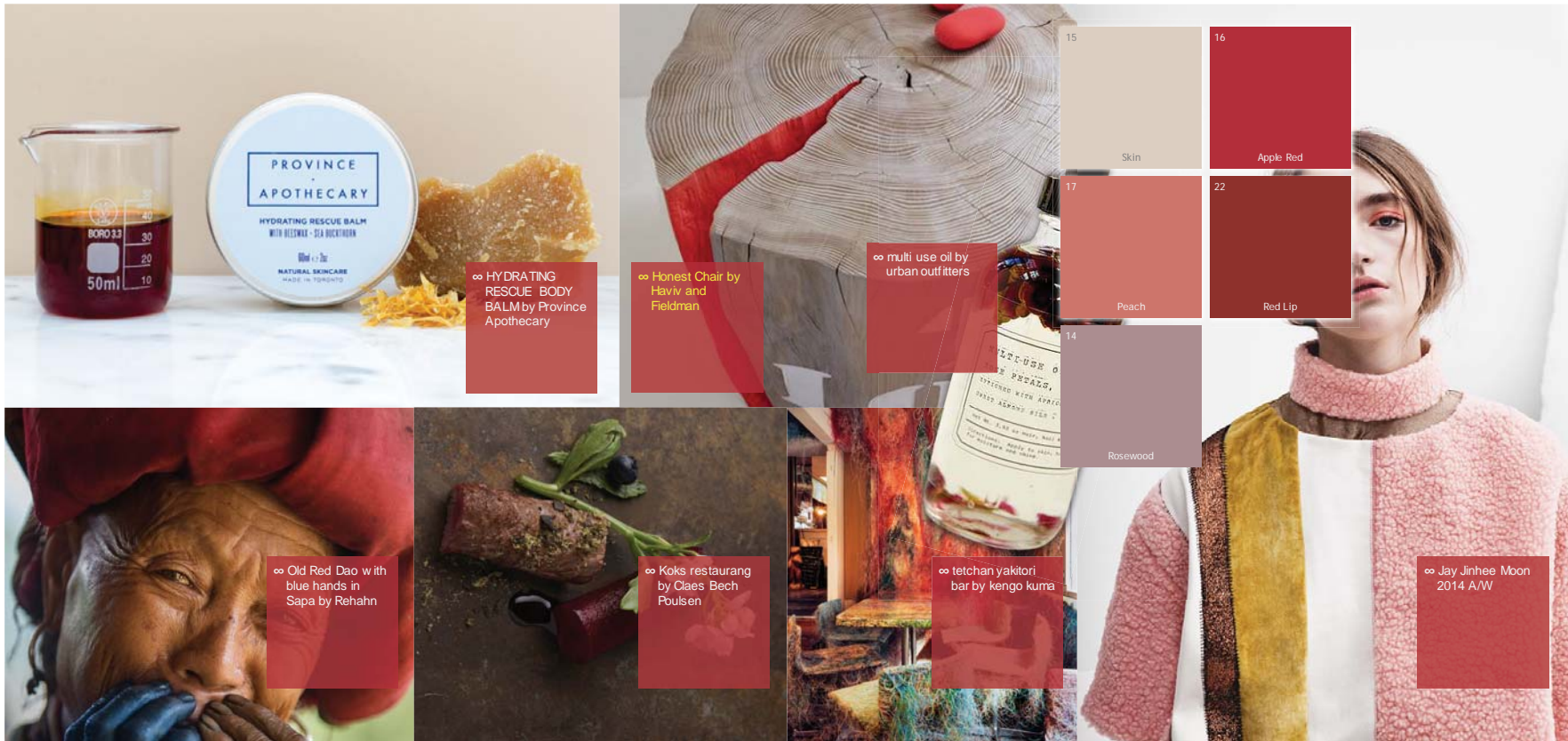
생존주의자들

생존주의자들 테마에서는 절대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복종하게 된 인간들은 자연과 가장 가까웠었던 선사시대 이전의 삶의 방식을 지향한다. 생존주의자는 단지 자연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주거지로 삼고, 자연에서 자급자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수렵과 채집에 대한 관심, 스스로 조각하여서 만든 식사 도구들, 자연 저장 오브제들 등이 제안된다. 모던하게 표현되는 파워 오브제들이 등장하며, 와일드하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요소들이 중요하다. 핑크(pink)와 브라운 모브(brown mauve)와 그레이(grey)가 메인 컬러로 제안되며 여기에 레드(red)가 포인트로 활용된다.



connected to nature
자연과 연결된

세 번째 테마에서는 자연이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태도들을 표현한다. 자연에 노출된 건축물이나 디자인들이 그 예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마주보는 산의 정경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창문들, 나아가 오픈된 공간에서의 자연과의 연결, 자연 소재와 레진(resin)을 활용해서 자연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스톨(stool)이 테마를 표현한다. 가늘고 긴 실루엣의 편안한 스타일들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안될 수 있으며, 컬러는 그레이 톤(grey-tone)들이 제안되는데, 솔리드 그레이(solid grey) 혹은 솔트 앤 페퍼(salt and pepper)를 표현하는 등 다양한 톤의 그레이가 제안된다.



∞ HYDRATING RESCUE BODY BALM by Province Apothecary

∞ Honest Chair by Haviv and Fieldman

∞ multi use oil by urban outfitters

∞ Old Red Dao with blue hands in Sapa by Rehahn

∞ Koks restaurant by Claes Bech Poulsen

∞ tetchan yakitori bar by kengo kuma

∞ Jay Jinhee Moon 2014 A/W

raw red hues
미가공의 레드 휴

INTUITION의 마지막 컬러테마에서는 자연 그 자체, 자연 염료 등 로우한 레드의 감성을 표현하는 디자인들이 제안된다. 내추럴한 텍스처(texture)의 매터리얼(material)에서 오는 로우(raw)함에 레드(red)와 스킨(skin) 컬러의 톤을 활용한 스타일들이 제안됩니다. 특히 소재와 컬러의 조합으로 더욱 강렬한 레드의 블러드(blood) 즉 핏빛의 느낌을 전달하기도 하고, 내추럴한 감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2016 F/W Color Proposal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랜드센터(CFT)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 산업에서 컬러 트렌드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디자인DB(<http://designdb.com/>)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랜드센터 전략기획팀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5, 남도빌딩 5층
T. 02)549-2362 F. 02)549-4745 H. www.cft.or.kr

(CFT) (재)한국컬러&패션트랜드센터